

광양시, GIST 연구소 유치 주민설득 나선다

(광주과학기술원)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내년 설립 추진 설명회 준비... 반대 시의원 설득 관건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양연구소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시의원 일부가 유치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지역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설치에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묻히고 있다.

광양시는 2일 “중마동 커뮤니티센터(부지 2만6000㎡, 건물 1만2000㎡)에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GIST 광양연구소는 에너지, 환경, 소재 등 특화분야 교육 및 연구시설을 갖추고 글로벌 전문공학박사 배출하는 시설이다. 시는 모두 350억원으로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리모델링(116억원)하고, 교육·연구 장비 구입(150억원), 운영(84억원)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복

안이다. 커뮤니티센터 부지와 건물(90억원)은 시가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며 연구소 설립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3단계로 나눠 추진 된다.

GIST 연구소에는 설립 첫째 교수 5명, 대학원생 10명 등 15명으로 출발해 2020년에 총 100여 명의 연구 인력 및 직원들이 상주하게 된다.

시는 지식과 산업이 결합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신모델로 국내 최초의 국제수준 PSEM(전문공학박사제도)의 운영을 통해 신산업 창출 및 미래 지향적 산업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시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 시의원들은 상주인원이 너무 적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데다 포스코에서 기부채납된 커뮤니티센터의 제3차 무상 양도는 시설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미래창조과학부, GIST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연구소 설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성용 시장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소 유치를 통해 중마동에 과학기술벨트로 구축되면 광양의 지역 브랜드 가치상승 및 동서통합시대 지식 폴강화와 산업 재황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의회를 앞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설립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한편 커뮤니티센터는 매년 14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는 다른 활용방안을 찾았으나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자연휴양림 유아 숲 체험 성황

어린이 1만여명 다녀가

순천시 어린이들의 정서발달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한 순천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한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사진>’에 1만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관내 56개 유치원과 2013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운영 협약을 맺고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숲 해설가 2명이 운영한 숲 유치원에 지난달까지 1만631명의 어린이들이 찾았다.

유아 숲 프로그램은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나무나 야생화, 곤충, 조류 등

숲에서 배울 수 있는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해설가가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아이들이 자연을 이용한 작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숲 속의 자연 체험장인 숲 유치원은 자연 그대로의 공간인 숲에서 활동하고 만지고, 보고, 느끼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호응이 높았다.

시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올해 운영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는 유아, 초·중학생, 임산부, 노인 등 각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양한 계층이 지역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여수~거문도 뱃삿 25% 할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여수시는 2일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문도 향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요금의 25%를 할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5일 삼산면 주민대표와 (주)청해진해운, (주)오션호프해운 간 ‘삼산면 거문도 관광 활성화 및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각 선사는 사업 기간에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한다. ‘오가고호’는 낮 12시30분 여수 연안여객터미널을 출항해 순죽~의성~서도를 거쳐 거문도에 도착하며, 오후 3시 거문도를 출항해 의성~순죽을 거쳐 여수 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보성군 우수기관 선정

보성군은 2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지난달 말 열린 ‘2013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안정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대회는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부문 등 3개 분야를 평가하며 예산절감과 세입증대 등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예산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린다.

보성군은 시설별로 분산 관리하는 기존 시설물 경영에 민간기법을 도입해 공공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인력감축으로 비용 15억여원을 절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청소년 시티투어

광양시는 지난 30일 광양·여수 일원에서 광양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나라찬’(청소년문화센터)과 ‘해솔·꿈어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3 청소년 시티투어’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전북

‘청정한우’ 드시러 고창 오세요

고창부안축협, 터미널 옆에 ‘한우명품관’ 개관

고창부안축협은 2일 “지난 30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청정 고창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축협 한우명품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강수 고창군수, 박래권 군의회의장, 임동규·오근호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축협중앙회 임직원 및 고창부안축협 임원, 대의원, 조합원, 지역주민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축협은 이날 개관식 후 참석한 고객 및 조합원에게 따뜻한 음료와 떡국을 무료

로 제공했으며 기념식 전후 다양한 축하공연을 통해 방문 내방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고창부안축협 한우명품관은 고창군 고창읍 공음버스터미널 옆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5월 착공, 부지

면적 2086㎡에 지상 2층(1450㎡) 규모로, 44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1층에는 축산물전문판매장인 하나마트, 고객의 취향에 맞게 고기를 직접 구입해 구워 먹을 수 있는 셀프식당과 노블식당으로 마련했다.

2층에는 50~200여명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회장과 다용도 사무실, 식사 후에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야외테라스도 갖춰져 있다. 특히 고창부안축협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기술

인 한우고기의 부위별 적정 숙성기간 예측프로그램을 적용해 더욱더 맛있는 한우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사중 조합장은 “고창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청정 도시 고창에서 생산되는 한우 먹거리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해 한우명품관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부안축협은 부안군 지역에도 한우명품관과 조사료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순창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호응

보건의료원 순환버스 운영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순창군이 고령화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순창군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 무릎관절과 허리 통증 등 ‘농부병’으로 진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고령화 지역 실정에 맞게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 조기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원 이용환자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경제력이 약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순창군 보건의료원 야간진료실을 지역응급의료기관 기준에 맞게 시설과 인력, 장비를 보강해 지난해 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24시간 상시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세계유산 등재 추진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의 무성서원(사적 제166호) 전경. 무성서원은 제4차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2015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대상 한국의 서원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정읍시 제공>

전주생물연구소, 미나리·무 발효음료 개발

유네스코 지정 음식향의 도시인 전주시에 미나리와 무를 발효, 음료로 만들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2일 “미나리와 무에서 인체에 이로운 성분을 발효시켜 그 효과를 최대화한

가능성 음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각각 천연 열시 ‘무·水’와 ‘미나·水’로 이름 붙여진 이들 음료는 특허출원을 거쳐 식품유통업체를 통해 생산·판매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이들 음료를 설탕 등 인공첨가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대신 유산균, 식품 유용균 등을 이용해 부작용이 거의 없고 당뇨병 환자가 마셔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무 음료는 매운맛을 없애고자 레몬즙과 탄산가스를 첨가, 청량감 있는 탄산음료로 개발됐다. /전주·군산=박영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순창, 내년부터 조사료 발직불금 지원

순창군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조사료 생산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농가는 겨울철 휴경 논에 청보리, 호밀, 이탈리아 안락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을 심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내년부

터 개선되는 시책은 겨울철 사료작물 발직불금 지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사일리지 지원을 위한 계근(무게 달기) 간소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특히 겨울철 휴경 논에 호밀, 청보리 등 사료작물을 심을 경우 발직불금으로 ha당 20만원이 지원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청년회의소 김부기 회장 취임

남원청년회의소(JCI)는 지난 28일 오후 남원 스위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남원JCI 창립 44주년 기념식 및 46대 회장단 취임식을 가졌다.

46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부기 회장(38·사진)은 지난 2008년부터 성실한 JCI 활동을 해와 이날 회원들

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김 신임회장은 “성실함을 바탕으로 힘써 JCI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도내 후기고등학교 9일까지 원서접수

2014학년도 전북 도내 후기고등학교 원서접수가 12월 9일까지 진행된 다. 모집 인원은 전주·군산·익산 같은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35곳) 1만 1217명,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53곳) 5681명 등 모두 1만6898명(87곳)이다.

모집 인원은 작년(1만7608명)보다

710명이 줄었다. 원서는 고입전형포털사이트에서 배부하며, 선발시험은 12월20일에 치른다.

비평준화 일반고는 12월 27일, 평준화 일반고는 내년 1월 9일에 각각 합격자를 발표했다. /전주·군산=박영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5일까지 열려

제15회 고창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이 지난 29일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5일까지 계속된다. 고창문화의전당에서는 이번 전시에 맞춰 카페라바블관 소장 ‘100년 전 풍물사진’ 전시회 등도 함께 마련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미나’가 고창군수상을 수상했다. 은상은 오세용(전주)씨의 작품 ‘동학1’이, 동상에는 박석영, 최일봉, 양돈희씨가 각각 선정됐다. 고창문화의전당에서는 이번 전시에 맞춰 카페라바블관 소장 ‘100년 전 풍물사진’ 전시회 등도 함께 마련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